

어떤 하객 약 30년 전 찍은 부모님의 결혼식 비디오에서 영감을 얻었다. 왕래가 잦지 않아 이름조차 희미한 친척들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자리에 본래의 가족이 더 낯설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워 '어떤 하객'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타고 남은 그물음과 재로 만든 먹물이 흘러내리는 효과를 이용했고, 작품은 〈가족 사진 찍는 가족〉과 함께 시리즈로 제작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김가연

IMMINYUNG 자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변화들을 포착한 사진 언니의 부스러진 발톱, 테이블에 남은 커피잔 자국, 어느새 뽀얗게 쌓인 방 안의 먼지처럼 대단한 의미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소한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카메라에 담았다. 어딘지 비밀을 간직한 사진을 좋아하고, 좋은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상상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임민영

KNITTING/KEEPING/DRAWING/BREAKING

TIME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운 방 안을 살펴보다 수집하듯 산 핀셋 내 것이 된 순간 애정이 쌓인 커피포트까지 각각 나의 지난 기억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영감을 얻었다. 묵직한 천 위에 마치 드로잉하듯 재봉틀로 바느질을 했고, 남은 실은 따뜻한 커피 향이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느껴져 따로 손질하지 않았다. 홍익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조소과 유소라

흔들리며 피는 꽃/ HOLDING BREATH 꽃병 속에 꽃이든 식물이 말라가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다. 불을 끄고 누운 뒤, 무심코 방 안의 사물을 바라봤을 때의 순간처럼 흑과 백을 최대한 대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연필과 지우개만을 사용했다. "책상 위에 있는 각각의 사물들은 그 나름의 희미한 후광을 지니고 있었다"는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의 말을 떠올리며 작업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한진

